

#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 비교연구

정소영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A Comparative Study of College Adjustment and Life Stress of Nursing Students by Grades

So Young Jung  
Professor, Dep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를 비교하여 성공적인 대학적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연구로서, 경기도에 위치한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총 417명의 학생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적응은 4학년이(3.45±0.53), 1학년보다(3.18±0.61)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 스트레스는 1학년이 가장 높았고(0.91±0.46), 4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는 각 학년에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 및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소별 차이를 토대로, 학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대학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대학적응, 생활 스트레스, 학년, 비교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college adjustment and life stress of nursing students by grades in Korea. A total of 417 participants were recruited using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October 15 to October 30, 2019.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4th grade (3.45 ± 0.53) than 1st grade (3.18 ± 0.61). Life stress was highest in first grade (0.91 ± 0.46), followed by fourth grade, second grade, and third grade. college adaptation and life stress by grade were inversely correlated in all grad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difference between college adaptation and life stress according to grade level, and to prepare customized programs according to the grades, so that students can make a good college adjustment through stress manag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ollege adjustment, Life stress, Grade, Compar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은 주요한 개인적인 과업이며, 대학교육 기관의 주요 관심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교의 엄격한 통제와는 다른 대학의

낮설고, 다양한 역할기능 및 광범위한 대인관계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 적응 문제는 인간 발달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이 시기를 어떻게 보

\*Corresponding Author : So Young Jung(smilejsyl@ansan.ac.kr)

Received December 10, 2019

Revised December 14, 2019

Accepted December 15,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내느냐가 이후의 직업 선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대학 생활에 실패할 경우 재기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기에 대학생 시기의 적응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

특히, 간호대학생의 대학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생활 스트레스가 언급되고 있는데[3-5],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 초기부터 학업 스트레스, 임상실습, 간호사 국가고시에 대한 중압감과 과중한 학습량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다[6].

이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감 상실과 성적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에는 대학생활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휴학이나 자퇴 등의 중도탈락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7]. 또한, 간호학과에서의 대학생활 적응은 향후 간호사가 되어 임상에 투입되었을 때 실력과 인성을 갖춘 간호사로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따라서 대학생활 초기인 1학년부터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는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활 스트레스를 언급한 연구들은 있지만[3-5],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년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소와 대학적응의 하위요소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일부 학년의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를 변수로 다룬 연구들이 있을 뿐이고[9-11], 최근 Yoo[3]의 연구에서 학년에 따른 대학 생활 스트레스와 대학적응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전체 평균을 사용하였다. 또한, Song과 Ha[12]의 연구에서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였으나, 나이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전체 평균을 확인하였다. 학년별 대학적응의 하위요소와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소를 비교하는 것은 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 및 대학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를 하위요소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 정도와 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하위요소별로 비교하고, 학년별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1, 2,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방법 등을 안내하고 설문내용의 비밀유지, 익명성, 인권보장 및 연구에 참여한 이후 철회 가능성을 명시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05, 효과크기( $p$ ) .25, 검정력( $1-\beta$ ) .80으로 산출한 결과, 연구대상자 수의 최소 표본크기는 180명이었다. 온라인 설문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750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요청하였으나, 443명이 응답(59%)하였고, 응답이 불충분한 26명을 제외한 417명의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연구자가 경기도 일개대학 간호학과의 동의를 얻고, 1, 2, 3, 4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지의 취지와 연구 윤리 관련 사항을 안내한 후 온라인 설문조사 연결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설문링크를 공유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연구 참

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들이 각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설문문에 응답하고, 이러한 설문 응답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취합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 진행방법과 절차,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혜택과 협조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고, 온라인 설문문의 특성상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하고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을 것임을 안내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내용에는 개인식별정보는 포함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 2.4 연구도구

### 2.4.1 대학적응

대학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 내의 구성원 및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스스로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과정을 의미한다[13]. 본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년별 대학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Jeong과 Park[13]이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 요인(진로준비, 학업활동, 대인관계, 개인심리, 사회체험)의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점수화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Jeong과 Park[13]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70~.86 분포를 보였고 전체도구의 신뢰도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69~.84 분포를 보였고 전체도구의 신뢰도는 .88이었다.

### 2.4.2 생활 스트레스

생활 스트레스는 인간이 경험하는 생활환경에서의 혼란이 개인의 항성성 유지를 위협할 때,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개인적 또는 대인적 대처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14].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위하여 Chon, Kim & Yi[15]가 개발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8개 요인(경제문제, 이성과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장래문제, 가치관 문제, 학업 문제, 친구와의 관계), 총 50문

항으로 이루어졌고, 개발 당시 각 문항은 경험빈도와 중요도에 대한 평정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Song 과 Ha[12]의 연구와 같이 경험빈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생활 스트레스의 경험빈도는 4점 척도로 참여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경험한 사건의 빈도를 0점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에서 3점 '자주 일어났다'로 점수화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75~.88 분포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82~.93, 전체도구의 신뢰도는 .94이었다.

## 2.5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chi^2$  test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 비교는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비교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학년별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각 학년별 76~80%가 여학생이었고, 전체적으로는 351명(84.2%)이 여학생이었다<Table 1>. 또한, 직전 학기 학점은 학년별로 3.0 이상~4.0 미만의 평점인 학생이 가장 많았고(51.7~72.0%), 다음이 4.0 이상, 2.0~3.0 미만 순(17.2~29.3%)이었다. 또한, 학년별 성별과 성적분포에서 각 학년은 동질성을 보였다. 간호학과와 입학 동기는 전체적으로는 '취업'이 가장 높았지만(48.4%),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1학년인 경우 '취업'으로 답한 학생이 90(60.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4학년인 경우 '적성'으로 답한 학생이 32(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Frequency(%)					χ <sup>2</sup>	p
		Total (n=417)	1st grade (n=147)	2nd grade (n=78)	3rd grade (n=99)	4th grade (n=93)		
Gender	Male	66(15.8)	22(15.0)	18(23.1)	17(17.2)	9(9.7)	5.93	.115
	Female	351(84.2)	125(85.0)	60(76.9)	82(82.8)	84(90.3)		
Last semester grades	4.0 or higher	98(23.5)	36(24.5)	17(21.8)	29(29.3)	16(17.2)	15.54	.077
	3.0 or more and less than 4.0	241(57.8)	76(51.7)	45(57.7)	53(53.5)	67(72.0)		
	2.0 or more and less than 3.0	70(16.8)	31(21.1)	13(16.7)	16(16.2)	10(10.8)		
	Less than 2.0	8(1.9)	4(2.7)	3(3.8)	1(1.0)	0(0.0)		
Motivation for admission	Aptitude	117(28.1)	32(21.8)	20(25.6)	33(33.3)	32(34.4)	26.48	.009
	Ease of employment	202(48.4)	90(61.2)	36(46.2)	46(46.5)	30(32.3)		
	Grades	16(3.8)	6(4.1)	2(2.6)	3(3.0)	5(5.4)		
	Advice	51(12.2)	11(7.5)	15(19.2)	10(10.1)	15(16.1)		
	Etc	31(7.4)	8(5.4)	5(6.4)	7(7.1)	11(11.8)		

3.2 학년별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소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학적응의 전체적 점수는 4학년이(3.45±0.53), 1학년보다(3.18±0.61)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적응의 하위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는 2학년 학생이 가장 높았고(3.16±0.77), 1학년이 가장 낮았으나(2.88±0.87)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업성취는 3학년이 가장 높았고(3.98±0.66), 1학년이 가장 낮았는데(3.72±0.66)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준비는 취업을 앞둔 4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3.16±0.85), 개인심리 적응 역시 4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다(3.97±0.66). 사회체험 역시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3.09±0.92),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의 전체

점수는 1학년이 가장 높았고(0.91±0.46), 4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 분석한 결과에서 경제문제는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높았고(1.07±0.79),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성과의 관계 역시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0.49±0.55)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수와의 관계는 4학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0.72±0.68), 가족과의 관계는 1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0.60±0.70). 장애 문제는 1학년이 가장 높았으나(1.23±0.66)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가치관 문제와 학업 문제는 1학년이 각각 1.07(±0.46)과 1.79(±0.57)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는 1학년(0.38±0.59)과 4학년(0.38±0.56)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2> College Adjustment and Life Stress according to Grades

Variables		1st grade (n=147)	2nd grade (n=78)	3rd grade (n=99)	4th grade (n=93)	F	p (Scheffe)
		M(±SD)	M(±SD)	M(±SD)	M(±SD)		
College adjustment	Interpersonal relation	2.88(±0.87)	3.16(±0.77)	3.10(±0.86)	3.03(±0.75)	2.505	.059
	Academic activity	3.72(±0.66)	3.77(±0.66)	3.98(±0.66)	3.90(±0.65)	3.725	.012(a<c)
	Career preparation	2.72(±0.80)	2.45(±0.92)	2.83(±0.85)	3.16(±0.85)	4.524	.000(a<d)
	Personal psychology	3.64(±0.78)	3.82(±0.74)	3.85(±0.73)	3.97(±0.66)	4.144	.007(a<d)
	Social participation	2.85(±1.01)	2.89(±0.99)	2.84(±0.94)	3.09(±0.92)	1.418	.237
	Total	3.18(±0.61)	3.23(±0.58)	3.34(±0.58)	3.45(±0.53)	4.622	.003(a<d)
Life stress	Economic problem	1.07(±0.79)	.83(±0.76)	.80(±0.67)	.88(±0.78)	3.114	.026(a>c)
	Love relationship	.49(±0.55)	.37(±0.51)	.40(±0.53)	.40(±0.60)	1.069	.362
	Student-faculty relationship	.58(±0.59)	.54(±0.62)	.45(±0.44)	.72(±0.68)	3.372	.019(c<d)
	Family relationship	.60(±0.70)	.41(±0.59)	.39(±0.56)	.48(±0.55)	2.869	.036(a>c)
	Future problem	1.23(±0.66)	1.17(±0.67)	1.04(±0.64)	1.07(±0.66)	2.091	.101
	Value problem	1.07(±0.79)	.83(±0.76)	.80(±0.67)	.88(±0.78)	3.114	.026(a>c)
	Academic achievement	1.79(±0.57)	1.66(±0.66)	1.72(±0.58)	1.51(±0.65)	4.281	.005(a>d)
	Friendship	.38(±0.59)	.23(±0.41)	.25(±0.45)	.38(±0.56)	2.350	.072
	Total	.91(±0.46)	.79(±0.41)	.77(±0.36)	.81(±0.47)	2.558	.055

### 3.3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년에 따른 대

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는 1학년( $r=-.265, p<0.001$ ), 2학년( $r=-.480, p<0.001$ ), 3학년( $r=-.376, p<0.001$ ), 4학년( $r=-.434, p<0.001$ )에서 모두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College Adjustment and Life Stress

Variables	College Adjustment			
	1st grade(n=147)	2nd grade(n=78)	3rd grade(n=99)	4th grade(n=93)
Life stress	-.265(p<.001)	-.480(p<.001)	-.376(p<.001)	-.434(p<.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를 하위요소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학년별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학과와 입학 동기는 전체적으로는 '취업'이 가장 높았지만(48.4%),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1학년인 경우 '취업'으로 답한 학생이 90(60.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4학년인 경우 '적성'으로 답한 학생이 32(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에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적성과 전공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취업률이 높은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현실[16-17]을 반영한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간호사라는 직업은 특히 적성과 사명감이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에게 진로 및 적성에 대한 상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적응의 전체적 점수가 4학년이( $3.45\pm 0.53$ ), 1학년( $3.18\pm 0.61$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는 달랐지만, 2, 3학년의 대학적응이 4학년에 비해 낮았다는 Yoo[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측정한 Lim과 Kim[18]의 연구에서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대학적응 점수가 높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학년이 오르면서 대학교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에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적응을 위한 과정, 예를들어 대학생활 안내, 진로탐색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1학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대학적응의 하위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는 1학년이 가장 낮았고( $3.72\pm 0.66$ ), 진로준비는 2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45\pm 0.92$ ), 개인심리 적응 역시 1

학년이 가장 낮았다( $3.64\pm 0.78$ ). 이 세 하위요소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따라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법이나 심리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대학적응에 보다 효율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진행하고, 임상실습을 앞두고 있는, 2학년이 진로준비가 가장 낮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선배와의 만남이나, 현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본 연구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적응을 확인한 결과(학업성취는  $3.83\pm 0.50$  점, 개인심리 적응은  $3.70\pm 0.66$ 점)[19]에 비해 낮으므로, 각 학교별 학년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학교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의 전체 점수는 1학년이 가장 높았고( $0.91\pm 0.46$ ), 4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27개의 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로 평가한 Yoo[3]의 연구에서 2학년과 3학년이 4학년에 비해 생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나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비교한 Song과 Ha[12]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향후 같은 도구를 통해 반복연구 및 학교별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소별 분석한 결과 경제문제는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높았고( $1.07\pm 0.79$ ), 교수와의 관계는 4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0.72\pm 0.68$ ), 가족과의 관계는 1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0.60\pm 0.70$ ). 가치관 문제와 학업 문제 역시 1학년이 각각  $1.07(\pm 0.46)$ 과  $1.79(\pm 0.57)$ 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학금 및 근로장학생과 같은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1학년에서 가치관 문제와 학업문제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학과와 입학동기가 취업으로 가장 높았던 결과와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다. 충분한 탐색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성급한 진로결정은 간호대학생들의 인사 후 현장적응의 문제와 이직 등과 관련될 수 있다[20-21]. 이에, 1학년 때부터 진로상담이나 진로코칭 프로그램, 학습법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22] 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았다. 따라서, 효과적인 가족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4학년 학생들이 교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실질적인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도교수와 의사소통 기회가 많아지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교수-학생 의사소통 어려움은 학교적응 및 교육 만족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므로[2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생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의 중도탈락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에 기여하며 교수-학습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24]. Jeong과 Park[25]은 교수신뢰 측면에서 능력이나 성실성보다는 친밀감이 학생들의 대학적응을 위한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4학년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자는 보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상담기술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는 모든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3,9, 26-29]에서 나타난 생활 스트레스와 대학적응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가 지지되었다. 또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3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적응에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학년별 생활 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대학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를 하위요소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는 각

학년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대학적응 및 생활 스트레스의 차이를 하위요소별로 확인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대학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년에 따른 간호학과 학생의 대학적응과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소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1,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대상자를 여러 학교의 학생으로 확장하여 진행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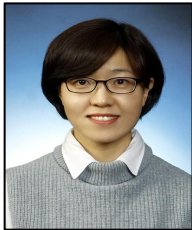
- [1] S. J. Lee & Y. J. H. (2008).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2(3), 589-607.
- [2] H. Y. Lee. (2008). Parenting Behavior and Adjustment to College : Moderating effect of Cultural Dispositions.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14, 337-355.
- [3] K. H. Yoo. (2018). A Study on th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3), 269-278. DOI : 10.5977/jkasne.2018.24.3.269
- [4] H. Y. Jung. (2016).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7), 259-268.
- [5] H. G. Son, S. H. Kwon & H. J. Park. (2017).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636-646.
- [6] E. J. Oh & S. A. Park.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dult attach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94-102.
- [7] L. Magnussen & M. J. Amundson. (2003).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experience. *Nursing & Health Science*, 5, 261-267. DOI : 10.1046/j.1442-2018.2003.00158.x

- [8] Y. K. Kwag. (2013).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5), 2178-2186.  
DOI : 10.15207/JKCS.2019.10.10.301
- [9] Y. S. Kim & J. Y. Seo. (2015). Construction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6), 1439-1452.
- [10] J. A. Park & E. K. Lee. (2011).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3), 267-276.
- [11] H. J. Won. (2015).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9(1), 123-131.  
DOI : 10.12811/kshsm.2015.9.1.123
- [12] Y. A. Song & Y. O. Ha. (2018). Factors Influencing on Lif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4(2), 139-145.  
DOI : 10.14370/JEWNR.2018.24.2.139
- [13] E. I. Jeong & Y. H. Park.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2), 69-92.
- [14] K. K. Chon & K. H. Kim. (1991).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a control theory approach.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137-158.
- [15] K. K. Chon, K. H. Kim & J. S. Yi. (2000).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2), 316-335.
- [16] E. A. Kim & K. S. Jang. (2012).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12-322.  
DOI : 10.5977/JKASNE.2012.18.2.312
- [17] S. S. Sim & M. R. Ba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634-642.  
DOI : 10.5762/KAIS.2016.17.12.634
- [18] J. R. Lim & S. Y. Kim. (2019).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Stress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0), 301-308.  
DOI : 10.14400/JDC.2016.14.7.259
- [19] Y. J. Oh. (2019).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07-317.  
DOI : 10.14400/JDC.2017.15.7.307
- [20] Y. H. Kim & Lee, Y. Me. (2012). Relationship of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problem solving process of nursing students after practice evaluation of fundamentals of nursing course using role pla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 13(1), 147-155.  
DOI : 10.5762/KAIS.2012.13.1.147
- [21] J. Waddell, K. Spalding, J. Navarro & G. Gaitana. (2015). Integrating a career planning and development program into the baccalaureate nursing curriculum: part iii. impact on faculty's career satisfaction and confidence in providing student career coach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12(1), 183-190.  
DOI : 10.1515/ijnes-2015-0070
- [22] G. S. Seo & S. Y. Bang. (2017). The Relationship Among Smartphone Addiction, Life Stress, and Family Communi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4), 398-407.  
DOI : 10.5762/KAIS.2017.18.4.398
- [23] M. J. Park.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culty-Student Communication Difficulties, School Adjustment Behavior,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6), 609-634.
- [24] G. Hagenauer & S. E. Volet. (2014).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t university: an important yet under-researched field. *Oxford Review of Education*, 40(3), 370-388.  
DOI : 10.1080/03054985.2014.921613
- [25] E. I. Jeong & Y. H. Park. (2008). Relations among faculty trust,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9(1), 73-93.
- [26] I. H. Chun & J. Y. Cho.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elf-efficacy, resilience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6(1), 49-60.
- [27] H. Y. Jung. (2016).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7), 259-268.  
DOI : 10.14400/JDC.2016.14.7.259

- [28] S. J. Lee & J. Y. Park (2018).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269-276. DOI : 10.14400/JDC.2018.16.2.269
- [29] H. G. Son, S. H. Kwon & H. J. Park. (2017).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636-646. DOI : 10.5762/KAIS.2017.18.5.636
- [30] J. H. Kim.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정 소 영 (So Young Jung)

[정회원]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2016년 2월 : 신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학, 아동간호, 가족중심돌봄
- E-Mail : smilejsy1@ansan.ac.kr